

한국여자골프 2014년 이후 10년 만에 개막 6개 대회까지 '무승'

유해란·전인지·김세영 "첫 승 내가 쏜다"



유해란



전인지



김세영



이소미

'한국기업 공식 후원' LPGA 포드 챔피언십 28일 개막

올해 LPGA 데뷔 이소미도 우승 도전장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이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창설된 이 대회는 KCC가 공식 후원을 맡아 대회 공식 명칭이 '포드 챔피언십 프리젠티드 바이 KCC'다. 지난주 한국 골프의 전설 박세리가 호스트를 맡은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주에는 한국 기업이 공식 후원을

맡은 대회가 열리게 됐다.

올해 앞서 열린 6차례 대회에서 나오지 않은 한국 선수의 시즌 첫 우승이 이번 대회에서 나올지가 역시 관전 포인트다.

올해 6개 대회에서는 넬리 코다(미국)가 혼자 2승을 거뒀고, 교포 선수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시즌 개막전에서 우승한 바 있다.

시즌 개막 후 6개 대회에서 한국 선수 우승이 없었던 최근 사례는 2

014년 이후 올해가 10년 만이다.

2014년에는 개막 후 14번째 대회인 그해 6월 매뉴라이프 파이낸셜 클래식에서 박인비가 한국 선수 첫 승을 따냈다.

이번 대회에는 김효주와 유해란, 양희영, 김세영, 전인지 등이 나오며 올해 LPGA 투어 무대에 데뷔한 이소미와 성유진, 임진희 등도 출전 선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세리 챔피언십에서 공동 5위에 오른 신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국 선수로는 신지에 다음으로 좋은 성적인 공동 10위에 오른 신지은과 이달 초 중국에서 열린 블

루베이 LPGA에서 공동 9위를 기록한 최혜진 등도 이번 대회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태세다.

지난주 퍼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코다가 시즌 3승과 2주 연속 타이틀에 도전하고, 리디아 고와 베일리 타디(미국), 해나 그린(호주)은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

대회가 열리는 코스는 세빌 골프 앤드 컨트리클럽(파2·6천734야드)으로 2000년 개장한 곳이다.

사막에 둘러싸인 코스로 아일랜드 그린이 있는 17번 홀이 경기 막판 여러 변수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제32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5개를 수확한 광주체육중 핀수영팀. (광주체육중 제공)

올 시즌 첫 대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서 무더기 메달

광주체육중·고 "출발이 좋다"

광주체육중·고 핀수영팀이 올 시즌 첫 대회인 제32회 전국학생핀수영선수권대회에서 무더기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육고 핀수영팀은 지난 21-23일 제주종합경기장 내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이유정(2년)이 금 2개와 동 1개를 수확했다. 이유정은 여고부 짝핀 400m에서 금메달, 짝핀 2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유정은 홍수진(3년)·김지은(2년)·유경현(1년)과 팀을 이룬 계영 800m에서도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다.

윤만니(2년)는 금 1개와 은 2개를 목에 걸었다. 윤만니는 짝핀에서 금메달, 짝핀 100m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윤만니는 김지은·홍수진·유경현과 호흡을 맞춰 계영 4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홍수진은 표면 200m와 표면 400m

서 은메달 2개를 보냈다. 김지은은 표면 5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손준영(3년)은 남고부 짝핀 200m에서 은메달, 짝핀 400m에서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팀워크가 빛난 광주체육중은 금 2·은 2·동 5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강윤호(1년)·최성연(2년)·신재이·손호서(3년)가 중등부 혼합계영 400m에서, 강윤호·최성연·손민서(3년)·손호서가 팀을 이룬 혼성짝핀계영 400m에서 각각 금빛 질주를 펼쳤다.

신재이는 여중부 표면 100m에서 은메달, 표면 50m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서서형(3년)도 남중부 표면 100m에서 은메달, 표면 200m에서 동메달을 각각 획득했다.

이밖에 손호서는 여중부 짝핀 100m에서, 손민서는 김지은·홍수진·유경현과 호흡을 맞춰 계영 400m에서 은메달을 추가했다.

홍수진은 표면 200m와 표면 400m

"통역사가 돈 훔치고 거짓말" 오타니, 불법도박 연루설 일축

미국프로야구(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불법 도박 연루설을 일축했다.

오타니는 26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타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즈하라가 지난 21일 불법 도박을 하고 오타니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구단에서 해고된 지 닷새 만이다.

오타니는 "미즈하라가 내 계좌에서 돈을 훔치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나는 스포츠 도박을 하거나 도박업자에게 의도적으로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타니는 "야구뿐 아니라 다른 종목에도 돈을 걸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베팅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면서 "베팅을 위해 도박업자를 거친 적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베팅 결제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타니는 "내가 믿은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매우 슬프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지금의 기본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수피아여중·고 농구 선수단 격려



전남 광주시체육회장과 임직원들이 지난 25일 광주시수피아여고 체육관을 찾아 수피아여중·고 농구선수단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광주시체육회가 지난 25일 광주시수피아여고 체육관을 찾아 수피아여중·고 농구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번 격려 방문은 수피아여중의 제6회 춘계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 우승을 축하하고, 수피아여고의 제49회 협회장기전국남녀중고농구 영광대회 선전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피아여중은 지난 7-15일 해남 우슬체육관에서 열린 '제6회 춘계 전국남녀중고농구연맹전'에서 전승 우승

과 함께 대회 2연패를 차지하는 선전을 펼쳤다.

수피아여중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개 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연맹회장기대회,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대회)에서 3연패를 달성했고, 2년 연속 전국규모 대회 4관왕을 차지하며 여자농구 최강팀으로 우뚝 섰다.

수피아여고는 26일부터 영광에서 열리는 '제49회 협회장기 전국남녀중

고농구대회'에서 우승에 도전한다.

전남 광주시체육회장은 "항상 최선을 다해주는 수피아여중 농구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대회 우승과 2연패를 축하한다"며 "오는 5월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부상 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수피아여고 선수들의 제49회 협회장기 대회 선전을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박희중기자



오는 29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개막전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이정후와 다르빗슈 /AFP=연합뉴스

이정후 첫 상대투수는 샌디에이고 다르빗슈

29일 본토 개막전맞대결

'바람의 손자' 이정후(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첫 상대투수가 결정됐다.

마이크 실트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감독은 28일 현지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오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팻코파크에서 열리는 본토 개막전 샌프란시스코와 홈 경기 선발로 일본 출신 다르빗슈 유를 내세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정후는 부상 등 변수가 없다면 개막전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다르빗슈를 상대로 MLB 첫 타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정후는 한 번도 다르빗슈와 같은 리그에서 뛰지 않았지만, 맞대결한 경험은 있다. 지난해 3월10일 일본 도쿄 돛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한일전에서 일본 선발로 나선 다르빗슈를 상대했다. /연합뉴스

이정후는 1회초 다르빗슈에게 좌익수 뜬 공으로 아웃됐으나 2·0으로 앞선 3회초 2사 2루에서 다르빗슈의 153km 초구를 때려 우전 적시타를 터뜨렸다. 당시 이정후는 한국의 4-13 대패에 관해 아쉬움을 남기면서도 다르빗슈와 두 차례 맞대결에 관한 기억을 가슴 속에 새겼다.

그는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다르빗슈를 상대로 안타를 친 타석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고 밝혔다.

이후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다르빗슈에게 안타 치는 사진을 게재한 뒤 WBC 출전 소화를 전하기도 했다.

다르빗슈는 자신과 맞대결에 의미를 부여한 이정후에게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다르빗슈는 해당 게시물을 찾아 영문으로 "함께 뛰는 날을 기대한다"고 댓글을 남겨 화제를 모았다.

다르빗슈의 바람대로, 두 선수는 1년 만에 같은 그라운드에서 상대 선수로 만나게 됐다. /연합뉴스

최정만, 통산 19번째 금강장사 등극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결정전 황성희 꺾어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이 통산 19번째 금강장사(90kg 이하)에 올랐다.

최정만은 26일 강원 평창 진부생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 결정전(5판 3승제)에서 황성희(문경시청)를 3-2로 누르고 통산 19번째 황스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최정만은 16강전에서 전도연(의성군청)을 2-0으로, 8강에서 오성호(양평군청)를 2-1로 제압했고, 준결승에서 임태혁(수원특례시청)을 2-1로 꺾고 장사결정전에 진출했다.

최정만은 황성희를 상대로 첫판에서 발다리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두 번째 판과 세 번째 판에서는 황성희에게 잡채기를 허용해 역전당했다.

최정만은 네 번째 판에서 발다리

우승해 균형을 맞췄고, 승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판에서는 안다리를 걸어 정상에 올랐다.

◇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 금강급(90kg 이하)경기결과

- ▲ 금강장사 = 최정만(영암군민속씨름단)
- ▲ 2위 = 황성희(문경시청)
- ▲ 공동 3위 = 김기수(수원특례시청) 임태혁(수원특례시청)

/연합뉴스



2024 민속씨름 평창오대산천장사씨름대회에서 금강장사에 등극한 최정만 (대한씨름협회 제공)